

# 母子保健訓練

—“Emory” 대학에서—

## <카톨릭의대간호학과> 이 해 정

“AID” 요청으로 마련된 “Emory” 대학에서의 母子保健訓練 과정의 외곽을 대한간호 통령 25호를 통하여 본회 교육위원장이신 최정자 선생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로 필자는 그의 숙연의 성격으로 訓練내용을 적어보기로 했다. 本訓練이 그 場所를 Atlanta Georgia에 所在해 있는 “Emory” 大學으로 택한데는 네가지 理由가 있다.

(1) Atlanta 市の 急進의인 發展을 들수 있다. Georgia 洲는 美國 南部에 있는 큰 洲로써 洲政府 所在地인 Atlanta市는 新興都市의 면모를 여러모로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人口의 移住로 保健問題의 多樣性을 띄우고 있다는 點이다.

(2) 美國 南部에서 가장 歷史가 깊은 大學의 具備된 人的資源과 看護科의 施設이 本訓練 수행에 만족하다는 點이다.

“Emory” 大學은 1836년에 감리교 大學으로 시작된 學校이며 1905년에 3年制 看護學校가 設置되었고 1944

年 6월에 看護學科로 승격되었으며 現在는 9個 單科大學과 “Emory” 大學病院이 綜合되어 권위있는 大學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看護學科 Dean은 教育學博士인 看護員으로 그 德望이 높으며 尊敬을 받고 있는 분이다. 本訓練에 參與된 看護員敎職員數는 약 40名이었다.

(3) Grady 市立病院을 實習病院으로 設定할 수 있었다는 點이다.

Grady 病院은 Atlanta 市立病院으로 1958년에 最新醫療施設을 갖춘 16 층의 모던 病院이며 1,015 침대를 所有하고 있고 그중 325個의 배시넬을 가지고 있는 年間 33,000 여명의 入院환자와 500,000명의 外來患者를 갖는 곳이다.

이 病院에서의 醫療治療는 “Emory” 醫科大學 감독下에 運營되며 290 名의 醫學徒와 “Emory” 看護學科와 Grady 看護學校 生徒 447名이 이 病院에서 實地 看護訓練을 받고 있다. 1960年 White House Conference에서 精神薄弱兒 豫防問題가 대두되었

고 Kennedy 政府는 이 豫防의 強力한 근거를 産前看護에 두어 莫大한 基金으로 所謂 Maternal and Child Health Special Project를 Grady病院에 設置하고

1. Prenatal Care Service
2. Laboratory Work
3. Hospitalization 등의

service를 市民들에게 베풀기로 되었다.

이 病院의 産科의 규모는 全美國에서 第五位로 크며 年間 出生兒數는 1963年 統計에서 7,110~8,000을 報告하고 있다. 또 이 産母들의 30%는 14個 保健所로부터 refer 되는 AP call (Antipartum, call) 환자들이고 22%는 no AP Call이며 기타는 Grady 病院 外來를 통하여 오는 患者들이다. (전 임신부 중 50%는 임신 3기에 病院에 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임신부 중 약 2,000名에서 Hirisk 상태를 發見하였으며 그중 800名은 Hirisk 狀態에서 分娩하고 있다는 事實이 밝혀져서 그 患者들만을 爲한 病室 소위 Hirisk Wing을 設置하고 그들에게 特殊治療를 하고 있다. 이 病院이 Hirisk 환자라 함은 다음의 category를 포함한다.

1. Hypertention
2. Hematologie (Blood-Anemia)
3. Cardia-Rumatic-Mierostenosis

4. Pulmonary TB.-Bronchiasis
5. Endocrine-Hyperthiraid-Obsty. wt. 200 Ib 이상 身長 5 ft 이하

6. Operative Case 普通 이상의 forcep delivery를 必要로 하는 妊婦年齡은 16歲 以下이며 身體적으로 未熟한 妊婦.

7. Psychiatric Case-Emotional Responses to Pregnancy.
8. Fetal Medicine 유전 경력 genetic counselling 이 必要한 妊婦

9. 其他— Eplepsy, Hepatitis, Malnutrition, Malignency等이다.

이 母子保健 project를 指揮하는 team의 구성은 社會事業家, 藥養學 專門家, 看護教育 그리고 Leaison Nursing Service를 포함하며 P.H.N.들의 활발한 家庭訪問과 保健教育이 이들을 뒷받침한다.

이 project가 産前 看護에서 取扱하는 것은 주로

- ① R.H.
- ② Cancer ditECTION test
- ③ Serological test
- ④ Urine for sugar, albumin test
- ⑤ Protein test
- ⑥ Suggestion of supplying supplemental iron tablets.
- ⑦ Diet supervision

⑧ 母性保健에 對한 敎示. 등이며 maternity instruction에 있어서는 母性들에 對한 敎育과 學生看護員들에 對한 保健敎育의 實施訓練에 置重하고 있으며 母性에 對한 保健敎育 方法은

① 技術과 理論이 單純하여 母性들이 自己生活 범위에서 充分히 活用할 수 있는 程度로 敎材가 마련되며

② 한가지 主題를 몇번씩 반복함으로 完全한 方法을 習得하도록 도와주게 한다. 病院內에서의 分娩과 産後看護(攝生)에도 치밀한 敎育계획이 産母自身들과 學生看護員들을 爲해 마련 되어 있다.

(4) Atlanta市에 所在하고 있는 Communicable Disease Ceter이다. 이 center는 美國에서 第一 큰 것으로 美國뿐만 아니라 全世界에서 일어나는 疫學的인 問題들을 研究 實驗하는 곳으로 그 규모는 廣大하며 保健敎育에 關한 材料를 爲한 撮影所 其他 Mass com. 으르 내보내는 各가지의 健康材料 製造를 담당하고 될새 없이 찾아드는 外國 醫療業者들에 對한 training course 가 계속되고 있는 곳으로 Atlanta市 地域에 直接的으로 끼치는 영향이 크며 特히 "Emory" 大學의 Main Laboratory의 역할을 함으로 그 地域民 全體에 커다란 혜택을 주는 重要機關이다.

以上과 같은 理想的인 條件들을

具備한 大學에서의 母子保健訓練은 풍부한 人的 物的 資源 속에서 짜임새있는 課程表를 通하여 時間이나 배움의 浪費가 거의 없었다. 本課程에서 重要하게 다루워진 主題들은 다음과 같다.

① 人間 生殖번식에 對한 새로운 知識과 理解

② 榮養과 關聯되는 妊婦와 未就學 兒童에게 要求되는 全般的인 健康管理

③ 人口成長에 關聯되는 統計學的인 心理學的 그리고 社會學面에서의 試圖와 그調整에 있어서의 政治的인 영향과 調節 과정, 記錄과 해당 人口와 이를 管理하는 職員敎育訓練 問題.

④ 母子保健에 對한 實習訓練과 이 面에 從事하는 看護員, 助査員들의 役割, 그리고 行政的인 機構와 敎育 수준.

⑤ 主題들에 對한 seminar와 group work을 通한 研究發表 등이었다. group研究의 題目은

1. Continuity of Nursing Care
2. Successful Inservice Education for Staff Nurses and Auxiliary Personnel.

⑥ 營養敎育에서 全世界, 各國 宗教的인 영향, 地域社會, 家族과 個人에 關聯되는 營養問題 論議,

敎科課程은 언제나 解剖生理에서

부터 시작되어 心理學的인 研究를 거쳐 社會的인 影響까지 파고 들었으며 完璧에 가까운 視聽覺 教育은 모든 理論을 實地化하였으며 教室에서의 공부는 “Grady” 병원에서 看護로 學科의 終結을 보곤 하였다.

9個國 代表들을 통하여 많은 保健問題와 實地 看護問題들이 交換되었고 發展하는 나라들의 樣狀이 흡사한 것들이 많음을 발견하였다.

결론으로 이번 訓練은 많은 사람들에게 母子保健發展에 對한 確信을

주었고 이 배운 知識들이 그대로 산 것으로 우리나라 M.C.H. 事業에 또는 看護教育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點이다. 視聽覺教育의 長點을 充分히 活用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과 教室에서의 理論이 病院에서나 保健所에서 一致되는 길들을 共同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本訓練課程의 本來 目的의 몇분지 일이라도 이곳에 틀림없이 소개되었기를 바란다.

## 시능교정사 (Orthoptist) 란 ?

시능교정사란 안과 의사를 도와 어린이의 시력을 보호하고 약시(弱視) 사시(斜視)를 조기에 발견하여 교정하고 예방이나 치료에 임하는 의료인이다.

시력의 발달은 체력의 발달과 달라서 만 8살만 되면 어른과 같이 완속되어 지기 때문에 적어도 만 3살까지는 시력이 좋은지 나쁜지의 판가름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병만을 따로 취급하는 소아과가 있듯이 외국에서는 어린이 안과가 따로 있어서 어린이들의 시력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공안과 내에 약시사시클리닉이 있어 시능교정사 1명을 쓰고 있는데 급년도 1~9월까지의 환자중 1.5%가 약시 환자라는 것을 발견해 내었다.

참고로 Worth 씨와 Chauasse 씨의 시력과 안구운동에 관한 생리학적 연례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생후 2주면 50cm에서 전동을 인식한다.

생후 5~6주면 물체를 바라볼 수 있다.

생후 2개월이면 사람의 손을 따라서 본다.

생후 6개월이면 눈을 앞으로 몰아서 물체를 따라 보는 폭주력이 있다.

생후 2년이면 0.5 정도의 시력이 된다.

생후 3년이면 0.8 정도의 시력이 된다.

생후 5년이면 1.0 정도의 시력이 된다.